

봉침요법 강좌(蜂針療法講座)



회장 고상기(高相基)

한국봉료보건연구회
국제봉료보건학술연구회 부회장

- 지난호에 이어서 -

제4장 의료분야(醫療分野)에서의 봉독(蜂毒)의 응용(應用)

제1절 봉독(蜂毒)의 임상효능(臨床效能)

5. 기타 질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봉독은 관절염, 신경통, 협심증, 맥관염 등의 질환에 대해 모두 양호한 진통작용을 발휘한다. 비스코프는 1954년 봉독을 사용하여 편두통 환자 56명을 치료한 결과, 그 가운데 37명에게서 양호한 치료효과를 얻었는데, 그는 또한 1961년 외과 영역에서의 유착에 의한 통증과 사지절단 후의 환각통에도 봉독을 성공적으로 응용한 바 있다.

1959년 블라디미로바(K. F. Vladimirova)는 봉독으로 기타 동통증후군을 치료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위 및 십이지장궤양 환자 32명이 6~8차례의 봉독주사를 통해 동통이 소실된 환자가 20명, 동통이 현저하게 경감된 환자가 8명,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환자가 4명으로 나타났다. 건성늑막염 환자 17명에 대해서는 동통이 소실된 환자가 11명, 현저하게 경감된 환자가 6명으로 나타났다.

알렉스커는 1964년에 봉독요법이 담낭결석과 신장결석으로 인한 통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아울러 봉독이 담도와 신장결석에 대해 색석 또는 용해작용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포레스테르는 1984년 봉독을 흔히 발생하는 슬관절통(膝關節痛) 건관절주위염(肩關節周圍炎) 및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음으로 인해 생기는 발꿈치의 통증에 사용하여 80%에 달하는 치료효과를 얻었다고 발표하였다. 퇴행성 척추관절질환에서도 봉독의 유효율은 약 65%에 달했다.

1971년 리아스치코(M. S. Lyaschko)는 봉독제제를 이용하여 자궁부속기염 700명을 치료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완치되거나 현저하게 호전된 경우가 623명으로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그 가운데 200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을 시행한 결과 2~7년 동안 재발이 없었고, 합병증으로 불임이 생긴 46명에 대해 봉산통(蜂散痛)을 이용한 치료를 시행한 결과 3개 단위의 치료과정이 끝난 후 15명(32.7%)의 환자가 임신을 하여 정상적으로 분만을 마쳤다. 봉산통(蜂散痛)은 부인과 질환 중의 염증에 대해 양호한 진통, 소염작용을 나타낸다.

봉독은 상기한 몇 종류 질환의 치료에 쓰이는 것 외에도 내과영역에서 또한 통풍, 유노, 신경기능이상,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의 질환에도 사용될 수 있다. 외과에서는 하지의 만성궤양, 반흔, 만성누관 등에



사용될 수 있고, 부인과에서는 갱년기증후군, 자궁 부속기염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신경과에서는 안면 신경마비와 외상성간질 등에 사용될 수 있고, 안과에서는 홍채염, 포진성안구염, 교감성안구염, 외상성안구색소증염, 각막염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피부과에서는 다형홍반, 결절성홍반, 감광성피부염, 피부결핵, 건선(乾癬) 등에 사용될 수 있고, 구강과에서는 설통(舌痛), 잇몸괴저, 소아의 잇몸주위질환 등에 사용될 수 있다.

6. 봉독에 대한 과민반응(過敏反應)

양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벌에 쏘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독에 대해 면역력이 생겨 동시에 수십, 수백 마리의 벌에 쏘여도 어떤 중독증상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어떤 사람들은 봉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한두 마리의 벌에만 쏘여도 즉시 신체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기도 한다. 위글린(C. Wegeline)은 1933년과 1948년에 각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두 마리의 벌에 쏘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두 사람의 예를 발표했다. 1974년 로렌스(M. Lawrence) 등은 4세의 남자아이가 벌에 쏘인 후 보인 과민성 쇼크에 대해 발표했는데, 이 남자아이의 할아버지도 일찍이 봉독에 쏘인 후 발생한 일종의 과민증상으로 사망한 바 있었다. 1976년 중국의 황림(黃琳)도 또한 벌에 쏘인 후 발생한 과민성 쇼크로 사망한 예 하나를 발표한 바 있다. 인체가 어떤 종류의 자극에 대해 민감도가 증가하는 것을 과민반응이라 하는데, 그 민감도가 감소하는 경우는 면역반응이라 한다.

고대 이집트의 묘비 중의 상형문자 중에는 기원 전 2,641년 이집트의 왕 메네스(Menes)가 벌에 쏘여 사망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벌에 쏘인 후의 과민반응에 대한 가장 오래 된 기록이다. 세계의 의학문헌을 통해 보면 벌에 쏘여 심각한 후유증이나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에 대해 매우 많은 기록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1963년 『미국의학

과학잡지』제 245권에 발표된 패리쉬(H. M. Parrish)의 글에 의하면, 그는 미국에서 매년 약 30~50명의 사람들이 벌에 쏘인 후의 과민반응으로 사망한다고 추정했다. 중국에서도 양봉업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이 벌에 접촉하는 기회도 증가하여 벌에 쏘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1979년 중국양봉학회 성립대회 및 학술토론회 상에서 진심동(陳心棟)은 그가 진찰한 벌에 쏘인 환자 60명(1975년 5월~1978년 6월)에 대한 기록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과민성 쇼크 환자가 7명이었다. 중국에서는 현재 사육되고 있는 꿀벌의 수가 이미 미국의 1960년대의 수준을 크게 초월한 상태인데, 이에 따라 봉독에 대한 과민반응과 이에 대한 예방, 치료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벌에 쏘이거나 봉침시술을 받고 과민반응을 일으켜 사망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유선명(劉仙明) 등은 1995년에 봉독주사액으로 인한 과민성 쇼크에 대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 환자는 48세의 남자로서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봉독 주사액 2ml(0.5mg)를 투약한 10분 후 피부소양, 안면홍조, 냉한(冷汗), 의식상실, 소변실금 등의 쇼크 증상을 보였다. 체온은 35.8℃, 맥박은 65/min, 호흡은 16/min이었고 혈압은 측정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심각한 과민성 쇼크로 진단되었는데, 이 환자는 이전에 약물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고, 전에 이미 근육주사로 봉독주사액을 6차례 투약했을 때에도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었다. 급히 산소를 흡입하도록 하고 에피네프린, 클로페니라민 말렛(chlopheniramine malete)을 피하 주사하는 한편으로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도파민, 아라민(aramine) 등을 투여하자 2일 후 회복되었다.

과민반응에 대한 치료법등은 뒤에서 설명하겠다.

7. 봉침, 봉독치료의 적응증(適應症)과 금기증(禁忌症)

요즘 민간에서 봉침 및 봉독요법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이 매우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봉독요법이 모든



질환에 다 쓰이는 만병통치는 결코 아니다. 현대의 학의 실제 임상경험을 통해 보면 봉독은 특정한 질환에 대해 확실히 뛰어난 치료효과를 지니고 있고, 아울러 여러 종류의 난치병을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봉독의 성분이 복잡함으로 인해 그 작용기전이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면이 많고, 현재 의료분야에서 봉독의 효용가치가 각 나라의 의학계에서 공인되지 못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소련의 의학계는 봉독요법을 비교적 중시했는데, 일찍이 20세기 50년대에 어느 의학원의 부속의원에서 봉료요법연구실을 설치하고 봉독요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구소련의 보건부 의료학술위원회는 1957년 3월 10일 일찍이 '봉침요법을 특정 질환에 사용하기 위한 임상지침'을 발표하였고, 1959년 1월 10일에는 이를 정식문서로 반포했다. 또한 이 위원회에서는 봉독요법의 적응증, 금기증과 치료 시 주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50여 년에 이르는 봉료요법의 연구와 실천은 사람들에게 봉독치료의 적응증과 금기증에 대한 인식을 넓히도록 하였고, 봉료요법을 담당하는 임상가들도 봉독치료의 적응범위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쌓아 각종 봉독약제에 대해 그 적응범위와 사용방법을 분명히 명기하기에 이르렀다.

1983년 출판된 『소련의학대백과전서』제 21권에 명시된 봉독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다.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밝혀 둔다.)

① 말초신경계통질환(신경통, 신경염, 척추신경근염)
② 만성관절염과 골관절질환 ③ 변형성척추골관절질환 ④ 염증성침윤(화농이 없는 경우) ⑤ 기관지천식 ⑥ 편두통 ⑦ 특정한 혈관질환 ⑧ 홍채염과 홍채 침상체염 등이 있고, 이 책에 열거된 금기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결핵질환 ② 성병 ③ 급성전염병 ④ 간장질환, 신장질환 ⑤ 급성화농과정 ⑥ 심혈관기능쇠약

이 책에서는 또한 조혈계통질환과 중양 환자, 그리고 임신부들에 대해서는 봉독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1) 적응증(適應症)에 대한 과학적 평가(科學的 評價)
봉독을 학질(?疾)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59년인데, 슐츠(Schultz)는 일찍이 열대학, 간일학, 삼일학을 치료한 바 있다. 그 후 1864년 루커무스키, 1956년 웰리스, 1960년 가이다(F. P. Gaidar), 1962년 서염고(舒炎高) 등도 봉독이 학질을 치료하는 데 유용하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중국곤충학회에서는 1962년 9월 열린 양봉학술토론회상에서 방주(房柱)가 '봉독과 학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봉독으로 생쥐의 실험성 학질과 인체의 간일학(間日?)을 치료한 결과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의 치료과정 중 간일학이 재발한 경우의 경과에 대해 발표했는데, 봉독이 생쥐의 학질과 인체의 간일학에 치료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였다.

1958년 방주(房柱)는 봉독을 이용하여 동물의 실험성 학질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도계서학원충(Plasmodium Berghei)에 감염된 생쥐의 심장혈액을 희석하여 매 ml당 5,000만 개의 감염적혈구를 함유하도록 하였고, 각 생쥐마다 복강주사를 통해 이 희석혈액을 0.2ml씩 주사하여 생쥐가 학질에 감염되도록 하였다. 접종 48시간 후 매일 1차례씩 복강주사법으로 투약하여 4일 동안 지속한 결과, 봉독의 수제(水劑) 및 유제(油劑)(양쪽 모두 동일하게 매일 한 마리 당 0.25단위를 주사, 0.025mg에 해당)에 학질을 치유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1959년 봉독요법으로 치료받은 2명의 환자가 치료과정이 끝난 지 3개월 내에 간일학이 발작했는데, 혈액 내에서 학질원충이 발견된 후 제때 다량의 봉독제제를 투여했지만 48시간 후에도 여전히 한열(寒熱)증상이 없어지지 않았고, 아테브린(Atebrin)으로 바꿔 투여하자 증상이 소실되었다.

1961년 가을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인해 봉독치료를 받은 한 어린이는 치료를 받은 지 반달 만에 관절증상은 완화되었지만, 불규칙한 발열증상이 36℃~39℃의 범위에서 나타났고, 이어 전형적인 간헐열(間歇熱)이 보였으며, 혈액샘플에서 간일학원충이



발견되었다. 이 환자는 1960년 여름에 봉침요법의 치료를 받기 1개월 전에 학질을 앓았던 병력이 있었는데, 이는 봉독이 이 어린이의 간일학의 재발을 방지하고 증상을 억제하는 데 있어 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후 또 한 환자의 경우는 관절염으로 인해 봉독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부인이었는데, 치료과정 중에 간일학이 발작하였다.

1962년 방주(房柱)는 롤로(Rollo)정량접종법으로 쥐의 학질에 대한 봉독의 치료실험을 반복하여 시행했는데, 대조군의 적혈구감염율과 서로 비교하여 볼 때 이미 알려진 학질치료제인 아테브린(Atebrin)으로 치료받은 군에서는 생쥐의 감염된 적혈구가 줄어드는 평균비율이 81.5%로 나타났다. 봉독 A, B군(매일 한 마리 당 봉독의 용량을 각각 0.25단위와 0.5단위로 함)의 생쥐의 감염된 적혈구의 평균감소율은 각각 41.4%와 14.8%였다. 롤로(Rollo) 표준에

의하면 학질치료제는 감염된 적혈구의 평균감소율이 50%이상이어야만 그 치료효과가 인정되는 것이다. 두 군의 실험 중에서 봉독군과 대조군 모두 학질에 감염된 쥐들이 3주 내에 모두 사망했는데, 아테브린(Atebrin)으로 치료를 받은 쥐들은 모두 살아남았다.

방주(房柱)는 지적하기를, 확정적인 치료효과를 인정받지 못한 약물 또는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학질증상의 간헐적 발작, 쉽게 만성화되는 경우,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많은 병례(病例)들에 대해 장기적이고 주도면밀한 관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동물을 이용한 질병모형의 치료실험과 같은 방법을 통해 과학적인 분석을 시행한 후에야 비로소 치료효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 다음호에 계속 -

아까시나무 연구회 정기총회 개최 공고

아까시나무 연구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05년 4월 15일(금)
13:00~

나. 대구대학교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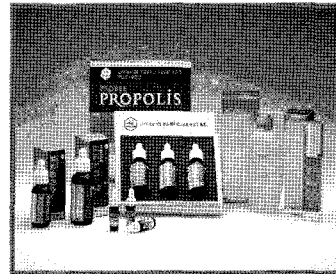
다. 대 상 : 회원

다. 주요내용

- 아까시나무 연구회 사업결산
- 학술 발표회

※ 사정에 따라 일정/장소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무알콜 · 수용성 프로폴리스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축용 사료첨가제

국산 프로폴리스 다량수매
(프로폴리스 OME생산 환영)

신기술평가 벤처기업
농림부지원, 농림기술개발사업자선정
미국 FDA, 공장등록 및 품질안정성 통과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 허가
기업부설 "프로폴리스 연구소" 설립



대한민국 프로폴리스의 자존심

서울프로폴리스(주)

대전 유성구 덕진동 150 한국원자력연구소 BI센터
프로폴리스 수매 상담 서울(02)517-3651/공장 및 연구소(042)862-4888
www.propolis365.com/propolis@probee.net